

어느 편집자의 눈물

국내의 출판 편집자들이 꾸러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북에디터' (<http://www.bookeditor.org>)의 자유게시판은 편집자들의 해방구다. 문자와 정신의 성채를 지키던 초병들이 가상공간을 점령해 차린 아지트인 셈이다. 이곳에서 편집자들은 출판계 현안에 대해 갑론을박하기도 하고, 밀실에서 떠도는 소문을 올려놓기도 한다. 때로는 동병상련의 애뜻한 정으로 서로 시린 등을 토닥여주기도 한다.

최근 이 게시판에 한 편집자의 넋두리가 올랐다. '사표 쓰고 싶어 죽겠다'는 제목으로 띄운 이 글에서 글쓴이는 자신의 서글픈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 "그 인간(아마 사장이나 상급자인 듯)이 뭐라 한마디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린다. 더 다니면 죽지 싶다"며 울분을 쏟아낸 글쓴이는 "취꼬리만한 월급 몇 푼 때문에 참고 다니자니 인생이 서글프다"고 자조하고 있다.

조회수가 2백회를 훌쩍 넘은 이 글에 대해 편집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한두 마디씩 위로나 격려의 글을 보내왔다. 어떤 이는 선불리 사표를 던지는 것은 모험이라며 자중할 것을 당부하고, 어떤 이는 마음을 터놓고 화끈하게 대화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고 조언하기

도 한다. 사표를 냈다가 3개월 후 다시 출판사로 돌아왔다는 어떤 이는 요즘 출판에 대해 심드렁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다며 자신의 근황을 밝히기도 한다.

여러 글 가운데 특히 오래 눈이 머물고 마음이 서늘해진 글이 있었다. 글쓴이는 "사실, 어젯밤에는 펜스레 눈물이 나더군요. 이러다가 정말 내가 설자리는 없는 거 아닌가 하고요"라며 쓸쓸한 심사를 내비쳤다. 글쓴이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나 내막이야 알 길이 없지만, 그가 느꼈을 막막함과 두려움은 짐작할 만하다. 자신의 의지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자꾸 뭔가에 밀리고 있다는 본능적 직감 때문에 눈물을 쏟지 않았을까.

누가, 무엇이 이 편집자들을 냉소와 비탄에 빠져들게 했을까. 편집자들의 인권을 무시한 악덕 기업주나 상사일까. 편집자를 단순 교정기능공으로 홀대하는 필자들일까. 환금성의 잣대만으로 정신의 가치를 폄하해버리는 상인들일까. 값싼 감상과 원초적 자극에만 호주머니를 여는 독자들일까. 겉으로는 문화의 세기를 외치면서도 정작 문화에는 무지한 정치인들일까. 책을 문화의 변방으로 밀어버리고 무섭게 질주하는 시대일까.

그 모든 것들이 공모해서 편집자들의 설자리를 위협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과연 편집자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본능적 깨달음이 오히려 희망의 근거는 아닐까. 공소한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편집자를 구석으로 내모는 사회구조나 시대와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불화(不和)하면서 자신의 신성한 영역을 조금씩 넓혀나가는 일, 그것이 편집자의 자존을 지키는 일은 아닐까. 오늘의 편집자가 흘리는 눈물이 진정한 편집자 정신을 되살리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박천홍기자

www.ISTORY.biz

자서전, 회고록, 자전 · 인물 에세이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전문가가 집필 또는 출판을 도와 드리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한서빌딩 1105호
 전화 : 784-5559, 4447 팩스 : 784-4404
 E-mail: top@istory.biz

나의 이야기 - 자서전 집필 · 제작 전문 출판사
ISTORY 아이스토리
